

이낙연, '정치 일번지' 종로 압승

"막중한 책임 온 몸으로 느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여당의 책임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누르며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5일 진행된 총선 결과 서울 종로 지역은 오후 9시30분 현재 이 위원장 63.2% 황 대표 35.4%(개표율 44.5%)로 이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이번 종로 총선은 이 위원장과 황 대표의 맞대결로 '미니 대선'을 방불케 했다. 종로의 투표율은 70.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사전투표 투표율 역시 34.58%로 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셈이다.

종로에서의 승리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위원장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만 내리 4선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 종로 당선으로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떨 수 있게 됐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미 세 번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 압승도 이 위원장에게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국 각지를 총회무진하며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 같은 총선 사령탑 역할은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이 위원장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만 40여명에 이른다. 총선을 계기로 당내에 그만큼 '이낙연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현장 열기 역시 대망론에 불을 붙였다. 이 위원장이 가는 곳곳마다 '이낙연' 연호가 터져나왔고, '대통령'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위원장에 지원 유세 요청이 빗발쳤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상대에 대한 비방 중심의 '네거티브 공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난을 극복하지는 차분한 메시지 역시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당으로 복귀한 이후 숨 가쁘게 총선 일정에 매진해온 만큼 당 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 향후 진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맡고 있는 코로나19국난 극복위원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총선 일정에 매진해온 만큼 당 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 향후 진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 상형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고 있다.

당대표 출마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24일까지다. 현재 당내에서는 홍영표·우원식·송영길 의원 등이 출마를 접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당규에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다. 2021년 3월 이전 사퇴해야 해 사실상 7개월짜리 당 대표인 셈이다. 전당대회에 출마해 자칫 당내 견제 세력이 생기는 점 역시 감안할 부분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총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당내에서 이낙연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라며 "그 리더십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대선에 유·불리를 가지고 고민하진 않을 거

다. 주변인들과 동료 의원들과도 많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온 몸으로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여당에 맡기겠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의식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른 국정과제 이행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쏟아져 나오는 투표용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 투표율 67%, 20년만에 최고

전북도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최근 20년의 총선 기록을 갈아치우며 67%로 마무리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도민(총선거인) 154만2579명 중 103만3977명이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진안(77.7%)과 순창(74.8%), 남원(74%), 장수(73.6%), 무주(72.8%) 등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주 완산구(66.1%)에 이어 익산(63.6%)이 차지했다.

이번 총선은 최근 20년 총선 투표율을 경신했다. 16대 60.6%와 17대

61.2%, 18대 47.5%, 19대 53.6%, 20대 62.9%를 넘어선 상태였다. 15대 투표율인 68.3%와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투표와 함께 도민의 소중한 한 표를 확인하는 개표작업도 시작된다. 개표는 14개 시군에 마련된 15개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시군별 개표소는 ▲전주시완산구 전주시화산체육관 ▲전주시덕진구 덕진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 1층 ▲군산시 군산월명체육관 1층 ▲익산시 익산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층 ▲정읍시 국민체육센터 1층 ▲남원시 춘향골체육관 1층 ▲김제시 김제실내체육관 1층 ▲완주군 완주군문화체육센터 1층 ▲진안군 진안문예체육관 1층 등 15곳이다. /특별취재반

민생당, 참패에 공중분해 수순

2월 출범... 계파 갈등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

진영 대결 구도 첨예해져 호남 표심 뒤흔들려

민생당은 기득권 양당체제 견제를 존재 이유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투표 종료 후 발표된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생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생당은 호남 지역 기반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으로 지난 2월 말 출범했다. 그러나 합당에 따른 지지를 상승 효과,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3월 초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3%

는 넘겼던 정당 지지율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 투표 일주일가량 앞두고서는 1%대에 머물렀다.

중요 계기마다 불거진 계파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부터 비례대표 후보 순번 논란까지 내용이 거듭되면서 부정적 면모가 부각됐다. 순화규 상임선대위원장이 비례 2번을 가져가면서 '노목' 비난에 직면한 대목도 빼어났다.

민생당은 손 위원장의 비례 순번을 14번으로 조정하는 등 반동을 피했으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진 못했다. 여기에서다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면서 호남 표심이 민주당에 쏠린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뉴시스

이해찬 "지지에 부응할 것...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에 혼신"

"21대 국회 나라 장래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밤 4·15 총선 승리를 확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 그리고 경제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민주

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방문해 "국민이 선택한 투표 결과를 4시간째 시청하고 있다. 아직 투표 최종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는 20대 국회

와 달리 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위기 대응에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전국 개표율이 40%를 향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150석 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승기를 잡은 모습이

다. 특히 이 위원장이 개표상황실에 방문했을 시점에 대선 전초전으로 불렸던 서울 종로에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개표상황실 상황판의 이낙연 후보 이름 옆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며 승리를 자축했다. /뉴시스

김영범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